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❶ 일경성과 일원상

▶ **강소연 교수는** 서울 태생으로 어린 시절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지냈다. 30년 연구경력을 가진 학자로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연구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홍익대 겸임교수로 10년간 교편을 잡았다. 현재는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화엔 三身 품은 부처님이 있다

연재를 시작하며

'깨달음의 미학' 연재에서는 삶과 직결되는 수행과 그것의 회화적 표현을 소개한다.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깨달음의 현상과 내용들은 불교경전(문자)으로 쓰여졌고, 불교미술(그림)로 그려졌다. 우리나라 국보 및 보물급 미술 속 핵심 상징과 함께, '수행–경전–미술'의 삼위일체로서의 해설을 제시한다. 이 글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새해 첫날 발원해 본다.



도판①. 부처님의 이미지, 남해 용문사 〈영산회상괘불도〉의 부분, 1769년, 삼베에 채색, 세로865.5 x 가로585.0cm.



도판②. 진리의 본체인 법신(일원상 또는 여의주)과 공덕 장엄의 보신(깨달음의 빛과 신성한 에너지)과 중생제도를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나툰 응신(사람의 얼굴 모습)이 하나로 합일된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해 일원상을 도해했다.

도판③. 본질적인 부처님의 형상은 일원상(또는 여의주)로 표현된다. 응신의 모습을 제외하면, 법신(여의주: 만유의 본체)가 남는다. 본체인 바탕자리 여의주에서는 무수한 여의주가 계속적으로 파생되어 나온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하지 않고 몸을 풀리라. 이번 나들이(인생)보다 더 바보가 되리라.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도전하리라. 산에도 더 많이 오르고, 강에서 수영도 더 많이 하리라. 거친 곡물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먹으리라. 상상의 고통보다, 실제적 고통과 맞서리라.(후략)

–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앞부분, 돈 헤럴드(Don Herold, 1889~1966)

"상상의 고통과 실제적 고통." 괜한 마음고생으로 인생을 낭비한 것을 후회하는 어느 시인의 고백이다. 고통에는 2가지가 있다. 상상의 고통과 실제적 고통. 즉,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정신적 고통이 치성하면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꾸준한 성냄은 화병이라는 실제적 가슴 통증을 일으킨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육체적 아픔은 불안과 공포의 심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일심동체! 서로 긴밀하게 주고받으며 고통을 가중시킨다.

몸과 마음, '나'의 생성 메커니즘

몸과 마음이 서로 만나면서, 몸은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몸이 나라고 생각한다. 기다렸다는 듯, 반쪽짜리들은 서로를 '나'라고 착각하며 찰떡처럼 붙어 연명한다. 이 '나라는 착각'을 '무명(無明)'이라 한다. 무명이란 '깨달음(자각)의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과 몸이 덩어리져서 '나를 형성하는 원리'를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12연기(緣起)의 과정'으로 통찰하셨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고 하셨다. 내가 만들어지는 생성 과정을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고통의 근원인 '나(나의 실체)'를 보라고 하신다. 그러면 왜 나를 보아야 하는가?

보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 그리고 나와 동반되는 고통도 사라진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힘(자각의 힘)을 키워, 자신을 통찰한다는 것. 그래서 자유가 된다는 것. 이는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고통 타파'와 '존재 해탈'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신 붓다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자. 붓다의 고통 타파법, 존재 해탈법은 '사마타(定 또는 止) + 위빠사나(慧 또는 觀)'의 수행이다. 간단히 그 요지를 살펴보자.

사마타와 위빠사나: 정혜쌍수, 지관겸수

사마타(선정)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대상은 무엇이든 좋다. 붓다 당시 제시된 40가지의 집중 주제가 있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티베트 · 중국 · 한국으로 전래 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주제들이 생겨났다. 이는 풍토적(風土的) 요인에 기인한다. 지역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에 이러한 풍토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에서 생겨난 선정 주제가 '화두'이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유사한 한자문화권이므로, 화두 전통의 범주에 들어간다. 해당 지역 또는 나라의 풍토에 맞게 생겨난 것인 만큼, 화두 참구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매우 잘 맞는 수행 방법이다.

화두 참구를 통한 선정 삼매는 단기간 내에 체험 가능하기에, 매우 극심한 고통 속의 사람에게 적극 추천되는 방식이다. 믿고 따를 만한 노련한 선지식의 지도에 따라 화두를 받고, 그것을 놓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 전통 속에 화두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마타 방식은 '염불'이다. 화두이건 염불이건 나옹선사의 말씀대로 "착득심두절막망(着得心頭切莫忘)" 하면 된다. 딱 집중하여 결코 놓지 않는다. 단, 이들 사마타 주제들은 초선정까지만 가능하다. 석가모니 붓다께서 말씀하신 기본 중의 기본. '호흡관찰(아나빠나사띠)'은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가능하고, 사마타와 위빠사나 두 가지를 모두 계발할 수 있다.

사마타 수행 통해 얻는 '합일 의식'
'법신과 합일' 어떻게 도상화 되나
法身은 '일원상, 여의주'로 묘사돼
보신 '광배', 응신은 사람으로 그려

사마타 수행은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에, '나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개념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기에, '덩어리째' 돌파하고 '덩어리째' 벗어난다. '있다'와 '없다' 둘 중 하나다. 벗어나건 못 벗어나건, 나는 계속 '덩어리로 인식되거나 또는 인식 안되거나' 이다. 어쨌든 실존적 고통은 계속된다. '덩어리'로 인식되는 나를 (지금 현실에서) '해체'하는 방법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것이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붓다께서는 말씀하셨다. 위빠사나 수행의 16단계 중, 1단계인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통해, 먼저 몸(물질)과 마음(정신)을 별개라는 사실을 통찰한다. 몸과 마음은 일심동체가 아니었다.

몸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고, 또 마음 역시 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다. 양자 모두 제각각의 기능에 충실하고 있지만, 서로에 의지하여 생존한다. '나'라는 것은 먼저 '몸과 마음'의 2가지로 해체되고, 다시 몸은 지수화풍의 4가지로, 느낌의 12가지로, 물질의 28가지로 해체된다. 정신 역시 마음의 89가지로, 마음 부수의 52가지로 해체된다.

결국 존재란 조건(또는 요소)들의 끊임없는 이합집산이고, 그 안에 영원한 실체(나)는 없음을 본다. 붓다는 이러한 존재의 법칙과 현상을 일찍이 '연기(緣起)와 무상(無常)'이라고 표현하셨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은 '무상, 고(苦), 무아(無我)'로 통찰하셨다.

법신+보신+응신=부처님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모든 대상과 하나 된 '합일 의식'이다. 내가 아닌 게 없고, 또 따히 나인 것도 없다. 〈금강경〉의 '구경무아(究竟無我)' 또는 '심우도'의 '인우구망(人牛俱忘)'에 해당하는 '일경성(一境性)'의 상태이다. 이를 물아일체 또는 범아일여라고도 한다. 사마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하얀빛(니밋따)이 나타난다 → (계속 집중하면) 그것이 유리처럼 투명해진다(사마타 수행의 특징: 세상이 선명해지고 투명하게 빛이 난다)→ 집중도가 강할수록 빛의 강도와 크기는 무한대로 세지고 또 커진다(무량광) → 처음에는 내가 빛을 (대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빛이 거꾸로 나를 대상으로 하여 순식간에 빨아들인다 → (나는 없고) 거대한 여의주가 나타난다. → 주객이 하나 되는 일경성을 체험한다.

오롯한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나(자의식)에게서 벗어나 본래의 바탕 의식과 합일하게 된다. 이것을 바탕 자리 또는 우주 의식이라고도 표현한다. 처음에는 개가 보름달을 보다가, 이제는 보름달이 개를 본다. 일체 반응하지 않는 부동(不動)의 마음, 때 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에서 세상을 관조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法身)이라고 한다. '청정법신(淸淨法身)'이라는 용어를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법신과의 합일' 상태는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지는가?

대승불교에서 불신(佛身, 깨달음의 몸체)은 삼신(三身, 세 가지 몸체)으로 정의된다. 가장 근본 자리인 본체를 법신이라 하고, 법신에서 일어나는 (수행 공덕의 과보로서의) 장엄을 보신(報身)이라 한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대상에 따라 근기에 맞게 모습을 나툰 것은 응신이라 한다.

이러한 삼신의 성격을 한꺼번에 품은 부처님. 부처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묘사되는가? 법신은 '일원상(또는 여의주)'으로 묘사되고, 보신은 '광배(깨달음의 빛)와 서기(瑞氣, 신성한 에너지)'로 묘사된다. 그리고 응신은 눈코입이 있는 '사람 형상'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도판①, ②, ③)

삼신귀일(三身歸一) 또는 삼신일체(三身一體)의 원리로 '법신+보신+응신'이 통합된 형상이, 우리가 익히 아는 불교미술 속 부처님의 모습이다. 삼신 각각의 회화적 표현으로서의 '일원상(법신)+광배와 서기(보신)+사람 형상(응신)'의 모습은 하나로 중첩돼 부처님 상호로 나타난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